

“효자 아들 해냈다” 화순이 들썩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이용대 가족 표정 기도하며 응원...주민들과 함께 환호

“아이고, 장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금메달을 따냈구나. 고맙다 고마워.” 스매싱을 휘두를 때마다 몸이 들썩거렸고, 점수를 획득하고 환호성을 지를 땀 같이 파이팅을 외쳤다.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의 주인공 공인 이용대(20·화순실고 졸·삼성전기 소속) 선수의 어머니 이예자(47)씨는 금메달이 확정되고 나서야 기도하던 두 손을 풀고 맘껏 환호성을 외쳤다.

을 혼합복식에서 풀어 가족들의 기쁨은 더했다.

어머니 이씨는 “올림픽에 출전해서도 매일 중국에서 부모들의 안부를 묻는 효자 아들이다. 자신과의 싸움

에서 이기고 당당히 금메달을 따준 아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며 “국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줘 너무 고맙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전완준(49) 화순군수는 “화순의 영광이자 대한민국의 자람이다. 이용대 선수를 훌륭하게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 드린다”며 “중국에서 돌아오면 축하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라켓을 잡은 이용대 선수는 2년 뒤인 4학년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급 학생들을 제압, 배드민턴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

소년체전은 물론 중벌선수권 대회 남중부를 싹쓸이하며 화순중 3학년 때 일찌감치 태릉 선수촌에 입성한 이용대는 화순실고에 진학한 뒤 국가대표 출신 박찬용 감독을 만나 단식

선수에서 복식선수로 전환했다.

화순실고 2학년이던 2005년 아시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에서 혼합·남자 복식 2관왕에 등극하며 주니어 무대를 평정한 이용대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복식 동메달에 이어 독일오픈에서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무대를 넓혀나갔다.

2007년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정 최우수선수 이용대는 올해 독일오픈 혼합복식 우승과 남자 복식 준우승을 거머쥔데 이어 전영오픈 금메달, 스위스오픈 우승을 석권하며 베이징 올림픽의 기대주로 주목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화순 출신 이용대 선수 부모(사진 앞줄 가운데)와 전완준(맨 오른쪽) 화순군수 등 주민들이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전이 열린 17일 밤 화순군청 상황실에 모여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하고 있다.

천둥·번개 ‘깜짝깜짝’ 8월 18일 (음 7월 18일) 전국날씨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25~29°C
포항	흐리고 비	25~28°C
여수	흐리고 비	25~27°C
완주	흐리고 비	25~28°C
구례	흐리고 비	23~29°C
해남	흐리고 비	26~28°C
남원	흐리고 비	25~28°C
고흥	흐리고 비	24~28°C
순창	흐리고 비	24~29°C
영광	흐리고 비	25~29°C
진안	흐리고 비	26~29°C
전주	흐리고 비	23~27°C
남원	흐리고 비	23~27°C
축산도	흐리고 비	22~26°C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3.0m
만바다=남서~서풍 파고 2.0~3.0m

목포 밀물 < 03:10 썰물 < 08:22
15:16 썰물 < 20:27
여수 밀물 < 09:52 썰물 < 15:48

▲해돋이 05:54 ▲해질 19:18 ▲달돋이 19:56 ▲달질 07:00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9(화)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날씨						
최저/최고	24/31	24/32	24/31	25/30	24/31	24/31

오늘 비...이번 주 무더위 한풀 꺾여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 날씨는 간헐히 비가 내리면서 33도를 웃돌았던 폭염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는 무더위가 한풀 꺾여 모기의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處暑·23일)가 있는 만큼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다소 낮아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20~80mm.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 기온은 27~29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이어진 후 개췌으며 22일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주는 간헐히 비로 인해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약간 웃돌겠으나 한 여름 폭염 때보다는 1~2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자기 회사 스스로 고발한 이유는?

여수 中企, 바이오디젤 제조·사용 규제 반발 “손수 만든 대체연료 사용 무죄” 판결 받아내

“전 세계에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한 나라는 한국 뿐일 것입니다.”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로 모든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을 들어 바이오디젤을 직접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왔다.

석유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 및 운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대형 정유사를 제외하곤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이 바이오디젤을 제조해 사

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바이오디젤 제조기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바이오디젤의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한 정부의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직접 자신들을 검찰에 고발한 뒤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식경제부에 등록하지 않고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B사와 직원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경부에 등록을 필해야 하지만,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제조를 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 등 B사 직원들은 여수공장에서 지난 2006년 9월부터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바이오디젤을 매달 30~300ℓ 씩 생산해 개인차량 연료로 사용하며, 성능을 테스트 해왔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개발과정에서 유사석유 제조를 단속하는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결국 B사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지경부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했고, 지경부로부터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려면 등록을 해야하고, 이를 어기고

사용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B사와 장씨는 이에 반발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주변 지인에게 자신을 검찰에 고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순천지원은 바이오디젤 사용부분을 제외하고 제조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 했지만, B사는 이것마저도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두 달 전 여수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 남양주시로 옮긴 B사는 현재까지 50여대의 제조기를 중장비업자, 마을버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이 회사 정종호(41·경기도 남양주시) 대표는 “재판을 해오면서 정부가 대형 정유사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에도 좋은 바이오디젤의 생산 및 판매를 방해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반문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부교육감 임명제청권 장관 → 교육감으로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데도 교과부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거친 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연필뉴스

“20일엔 불을 끄고 별을 쬐시다” 광주·전남 전등 끄기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

오는 20일 제5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전등 일제 소등 등 에너지 절약캠페인이 전개된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밤 9시부터 5분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옛 광천터미널)광장에서 ‘불을 끄고 별을 쬐다’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 전역의 전등끄기 캠페인을 벌인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이에 앞서 광주 지역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 대형할인점 등을 상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동안 ‘지구를 위한 에어컨 끄기’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밤 8시부터 유스퀘어 광장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을 악회’를 개최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민실천강령 홍보와 ‘1인당 10ℓ 석유모으기’ 캠페인, 천체관측교실, 자가발전 자전거 시연 등 부대행사도 결속된다.

(주)삼천리전자전기와 (주)금호고속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 코레일광주지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아름다운가게 등이 함께 하며 ‘에너지절약실천 국민행동 광주운동본부’ 발대식도 겸해 열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